

코스피 지수 월간 하락률 10년來 최대

이달 들어 16% 폭락

현대중·두산중공업 '추락' SK텔레콤·한진 '약진'... '시총 지도'가 바뀌었다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 하락률이 월간 하락률 기준으로 10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지수의 5개월 연속 하락도 '카드사태' 이후인 2004년 3~7월 이후 처음이다.
21일 코스피와 LIG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16.60%로, 월간 하락률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5월 -21.17%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IT버블이 붕괴했던 2000년 2월(-12.24%), 4월(-15.74%), 7월(-14.03%), 10월(-16.10%)에 크게 하락했고, 2002 한일월드컵이 끝났던 2002년 9월(-12.22%), 12월(-13.42%)에도 하락률이 컸다.
코스피지수 5개월 연속하락은 카드사태 이후인 2004년 3~7월이 가장 최근 기록이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6월(-9.56%), 7월(-4.79%), 8월(-7.55%), 9월(-1.78%)에 이어 이

달 들어 20일 현재까지 5개월째 40.28%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900선에서 1,100선으로 하락한 최근 5개월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중 고점을 기록한 5월 16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부동의 1, 2위를 지킨 가운데 3~50위까지는 치열한 순위다툼이 벌어져 경기 방어주가 약진했으나 경기 민감주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6일에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900선을 돌파했고 1,888.88로 연중 고점을 기록했으나, 20일에는 장중 1,149.39를 기록하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시가총액 순위 다름의 최대 승자는 SK텔레콤과 한국전력, KT, KT&G 등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 SK텔레콤은 5개월 전 17조507억원으로 시가총액 9위였으나 21일 오전 10시 현재 18조1천466억원으로 3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전력(21조8천454억원→17조7천714억원)과 KT&G(12조3천150억원→12조1천38억원), KT(13조721억원→10조7천226억원)는 시가총액이 줄었지만 순위는 각각 6위에서 4위, 15위에서 10위, 14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KTF(5조5천408억원→5조2천623억원)도 38위에서 27위로 약진하며 시가총액 3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방어주의 전진과 달리 조선·기계·철강 등 민감주는 미국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침체로 확산하면서 시가총액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작년 증시의 최고 재발견주로 꼽혔던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27조5천920억원에서 12조7천300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축소돼 3위에서 9위로 추락했다. 두산중공업은 17위(11조3천333억원)에서 23위(6조2천762억원)로 물러났으며 삼성중공업(24위→30위), 대우조선해양(27위→45위), 현대제철(31위→42위)도 후퇴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5명 중 1명 매출액 감소 '울상'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최근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소상공인 110명을 대상으로 경기동향을 설문한 결과 81.7%가 '최근 매출액이 올 상반기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평균 감소율은 32.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상공인의 73.3%는 경영수익이 참여가족의 인건비에 '다소 못 미친다'(41.9%)거나 '월천 못 미친다'(31.4%)고 답했다.
최근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하냐는 물음에 '어느 정도 심각하다'(39.1%), '심각하다'(39.1%), '매우 심각하다'(10.9%) 등 부정적인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자금난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이 심화해서(78.5%)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가 회복될 시기로 소상공인들은 대개 '내년 하반기'(44.9%)를 꼽았다. 또한 41.2%는 내후년 상반기 이후에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 연말'(1.9%)이나 '내년 상반기'(12.1%)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드물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단체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형상점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형상점,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수료 격차를 최대 0.5%포인트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은행 외채 보증한도 140% 확정

光銀 4억1천만달러 등 18개 은행 1천억달러 책정

광주은행 4억1천만 달러 등 국내 18개 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보증한도가 140% 수준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8개 국내 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1천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비거주자(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차입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기로 했었다.
총 보증한도 1천억달러는 2009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금 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해당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하되 최소보증 한도액은 1억달러로 설정했다.

은행별 보증한도를 보면 산업은행이 161억9천5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이 118억7천만달러, 하나은행이 117억9천7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신한은행 95억5천500만달러 ▲수출입은행 93억9천400만달러 ▲외환은행 86억2천300만달러 ▲국민은행 86억2천100만달러 ▲기업은행 70억1천만달러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58억4천400만달러 ▲농협중앙회 48억1천200만달러 ▲한국씨티은행 34억700만달러 ▲부산은행 8억6천900만달러 ▲대구은행 5억7천100만달러 ▲수협중앙회 4억3천400만달러 ▲광주은행 4억1천400만달러 ▲경남은행 3억8천500만달러 ▲전북은행 1억달러 ▲제주은행 1억달러 등이다.
정부는 이날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삼성 와이드 LCD 모니터 출시

삼성전자는 21일 고공택 재질의 테두리에 순백색의 깨끗함을 강조한 와이드 LCD 모니터(모델명: CX-2233GW)를 출시했다. 새 제품은 하단부에 투명 아크릴 소재의 데코레이션 바를 적용해 모니터를 켜고 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푸른빛이 단아한 느낌을 주고, 제품 후면부에 삼페인의 기포를 형상화한 무늬를 새겨 넣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합뉴스

"한국인은 큰 차를 좋아해"

승용차 평균 배기량 2천113cc

EU國 1천744cc보다 21% 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승용차의 평균 배기량이 2천113cc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 1천744cc보다 21%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 국가 중 신규 등록 승용차의 평균 배기량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1천970cc)보다도 높고 독일(1천863cc)과도 250cc나 차이가 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녹색성장교통연구센터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의 이 같은 승용차 중대형화 추세를 비롯한 녹색교통과 안전, 건강 등을 주제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대비 지난해 경·소형차 신규 등록대수는 각각 0.5배, 0.7배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중·대형 승용차는 각각 1.4배, 4.3배로 늘었다.
중대형 승용차 급증 현상을 분석한 성낙문 연구위원은 "국민 소득이 증가한 탓도 있으나 법·제도적 요인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승용차 특별 소비세가 1977년 40%에서 2004년 8%로 크게 내려 승용차 구입비용이 낮아지고, 2000년대 초반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우 세율로 RV 승용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제도적 요인이 승용차의 중·대형화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성 위원은 "경차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거나 노상 주차장의 절반을 경·소형차에 할당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을 통제해 중대형 승용차에 끼어 있는 체면이라는 거품도 빼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만금 농지 30%로 축소

산업·관광 분야는 39% 배정 등 활용 방안 확정

여의도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전체 간척지의 39%는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분야, 30%는 농업에 배정하고 나머지 27%는 구체적 수요가 확인될 때까지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참여정부 개발안에 비해 농지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산업·관광·에너지·환경용지가 확

대됐다. 이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 목표에 따라 복합용지로서의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거의 그대로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호수 부분을 제외한 새만금 내부토지 2만8천300ha 가운데 30.3%(8천570ha)는 농업용지로 쓰인다. 지난해 4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몸사리기' ... 경제심리 여전

韓銀 유동성 지원 등 노력 ... 외환시장 점차 안정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21일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중국 신흥경제에 파급되는 등 불안요인이 적지않은 상황이라서 시장 참가자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금융시장 비교적 안정 =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30분 현재 전 날보다 달러당 13원 오른 1,328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3.00원 급락한 1,30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300.00원으로 밀린 뒤 매수세가 유입

되자 반등했다. 환율은 수입업체의 결제수요 등으로 오르고 있다. 미 의회가 추진중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점도 원화 약세요인이다.
◇외환자금시장 안정 기미 = 외환자금 시장은 안정을 찾는 분위기다. 이날 하루짜리(오버나이트) 달러화 리보 금리는 1.5%로 시작해 차츰 하락하면서 1.2% 수준으로 떨어질 채 거래되고 있다.
오버나이트 금리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신청한 이후인 지난달 말 11%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미국 구제금융안의 의회 통과 등 영향으로 이날 15일 1%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영향으로

국내 외환스와프 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현·선물환율 격차인 외환 스와프포인트 1개월물은 이날 -2.75원으로 전 날보다 0.25원 상승했다. 스와프포인트는 지난 16일 -8.00원에서 3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유동성은 여전히 경색 = 전문가들도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경색 해소에 힘쓰고 있어 자금시장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원화 유동성 경색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은행계 시장에서는 전 날 국민연금이 은행채를 매수한 이후로는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계 AAA급 3년물 금리는 지난달 16일 6.72%에서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20일 현재 7.90%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올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추진

이달 말 계획안 국회 제출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를 사실상 인상해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현재보다 약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 상한선을 현재 360만원에서 2013년까지

매년 20만원씩 인상해 월 소득액 46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월 소득액이 1천만원에 달하더라도 36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2013년에는 월 소득액 46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처럼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 상한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므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에덴상사	회계, 경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62-674-4747
이스카외국어학원	[광주 동구]일본어/영어 강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62-232-1503
한리메디칼	병원 마케팅 및 관리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6	062-262-3001
명신상사	배송 및 창고관리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26	062-374-5383
기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	자동차영업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2	062-574-8011
엘리시아	[영양부 홀/조리부]정규직 사원 및 아르바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62-385-3000
유림산업	제작관리, 품질관리 정규직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61-720-1705
동호테크	정규직 성형연식,밀링,생산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0/28	062-944-7009
LG전자.동광주서비스센터	안내데스크 사원 (내방고객 안내 및 상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28	062-529-9400
AIG손해보험	[AIG 순천 CS센터]제7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8	061-906-7632
코세미	[구매자제/반도체개발/생산관리]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8	062-602-7742
로미오골드	쇼핑몰 사무 관리 및 경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8	062-236-0324
한국공영엔지니어링	비파괴검사원 신입 및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31	062-369-079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위스키 1병이 1억4천만원



제조원가만 6만 파운드(1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위스키가 원저 브랜드로 탄생했다.
다리아지오코리아는 국내에서 만든 위스키 브랜드 '윈저'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다리아지오 본사의 지원을 받아 최고급 위스키인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리(Windsor Diamond Jubilee·사진)'를 특별 한정판으로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로열 워런트(Royal Warrant)를 하사한 로열 락나가(Royal Lochnagar) 증류소에서 생산된 원액을 중심으로 50년 넘게 숙성한 원액을 비롯, 최고의 맛과 향을 지닌 것으로 증류소 원액 등 희귀 원액이 배합돼 만들어졌다. 단 12병으로 한정 제작된 제품용기는 마개와 병목 부분을 은으로 만들었고 병의 앞면 위쪽에는 18K의 금장식 위에 0.5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장식했다. /연합뉴스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